

김동리의 <원왕생가(願往生歌)>에 나타난 원효의 정토사상(淨土思想) 연구

방민화

1. 서론

김동리는 역사 단편소설 16편을 완성하여 1977년에 『김동리의 역사소설』¹⁾을 출간하였다. 그 작품집은 신라와 경주라는 시·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의 사료(史料)를 근간으로 허구화되었다. 그리고 ‘신라편’이라는 부제(副題)가 달려 있다. 작가의 고향인 고도(古都) 경주를 더듬어 가는 작업은 자기 근원의 회귀이며 자기 정체성 추구와도 맞닿아 있다. 그것은 김동리의 민족주의 정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김동리 소설에서 원시적 자연과 자연귀의적 토속신앙이 일체에 깃들린 한국인의 전통적인 힘으로서 식민지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²⁾이었다면, 사료의 설화를 수용한 역사소설도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집단적 체험에 관한 기억인 역사를 파헤치면서 민족적인 삶의 원적과 자기 신원을 탐색해가는 진정한 역사소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역사 해석에의 성찰을 끊임없이 요구”³⁾하기 때문이다.

1) <우륵>(1956년에 <악성(樂聖)>으로 발표하였으나, 『김동리 역사소설』에 <우륵>으로 개제하여 수록되었다.) <원왕생가>, <수로부인> 등 세 편은 1956년에 발표했으나 원발표지가 미확인 상태이다. 그 밖의 나머지 작품은 발표연대와 원발표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이보영, 『식민지시대 문학론』, 필그림, 1984. pp.434-437 참조.

3) 송희복, 『소설의 역사성, 소설사의 환(幻)과 탈역사성』, 청동거울, 2004, p.53.

작가가 특히 전통적 요소로서 전설을 채용한 것은 그것이 한국민족의 정신 속에 뿌리 깊게 잔존해 온 집단 의식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민족의 고착심 리임을 확신한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작가는 민간신앙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전승적 이야기들을 재구함으로써 그가 지향하고자 한 민족 정신의 계승은 물론, 소설 창작이라는 장르적 선택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겠다.⁴⁾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에서 작품명이 인명(人名) 중심⁵⁾인 데 반해, 소설 <원왕생가(願往生歌)>는 향가의 제목 그대로를 차용하고 있어 제목부터 김동리의 다른 역사소설과는 다르게 출발하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역사적 인물은 승려, 유학자, 군왕, 미모의 여인, 권력층의 무장이다. 이 인물들은 김동리의 초기 작품군의 <무녀도>, <바위>, <황토기>, <산화>의 등장인물인 문동병자나 무당, 하층민 등 가난하고 미천한 인물과는 대조된다. 그의 역사소설이 상류층의 인물중심으로 전개되더라도 그들의 신분 의식과 당대의 이념보다는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다. 그것은 작가의 의도와 이념이 투영된 결과이며 사료와 허구화의 거리이다. 작가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 것은 작가의 이념을 투영하기에 자유로운 시·공간을 선택한 것이며, 이로써 작가의 의도대로 형상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동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을 소설적 영역으로 수용함으로써 사료의 정확성과 그 재현에 얽매이지 않고 인물 창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에서 왕조사가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배경 전면에 나와 있는 인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써 김동리는 사료를 단지 소설의 소재로 취하였을 뿐이며, 소설에 작가의 이념을 깊이 투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김동리의 낭만주의적 소설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동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주관과 객관의 분열이 없는 조화로운 시적 세계를 지향한다.”⁶⁾ 루카치에 의

4) 홍경표,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전통의식」, 『현대소설론』, 새문사, 1999, p.181.

5) <원왕생가>를 제외한 역사단편소설 16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회소곡>, <기파랑>, <최치원>, <수로부인>, <김양>, <왕거인>, <강수 선생>, <눌기 왕자>, <원화>, <우륵>, <미륵랑>, <장보고>, <양화>, <석탈해>, <호원사기(虎願寺記)>이다. 이 중 <원왕생가>, <호원사기>, <원화>를 제외하고 모두 작품명이 인명으로 되어 있다.

하면 역사소설이란 과거를 현재의 전사(前史)로서 역사적 과거라는 의식 하에 형상화된 소설이다. 김동리의 역사소설은 루카치의 역사소설의 개념에 따라 엄격한 장르적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소설 <원왕생가>에 대한 사료는 『삼국유사』의 感通이다. 감통은 신앙의 감응과 영험에 관한 기록을 수록한 부분이다. 작가가 소설집의 부제(副題)를 ‘신라편’이라고 한 만큼 신라인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종교의식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열여섯 편은, 전체적으로, 신라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과 의지와 지혜와 이상과, 그리고 그 사랑, 그 죽음의, 현장을 찾아보려는 나의 종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완전히 동일한 기조의 작품들이다. 그것을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신라혼의 탐구>랄까, <신라혼의 재현>이랄까, 그런 성질일 것이다.⁶⁾

김동리가 추구한 ‘신라혼’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관심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원왕생가>를 선택하여 소설화한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보다도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고는 사료와 소설적 허구화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고 신라인의 삶과 종교의식의 구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신라 당대에 영향을 끼친 원효의 정토사상을 중심으로 밝혀볼 것이다.

2. 『삼국유사』와 소설 <원왕생가>의 거리

『삼국유사』 감통(感通)의 광덕엄장(廣德嚴莊)이 소설로 옮겨오면서 광덕엄장(廣德嚴莊)의 인명이 사라지고 향가 제목인 <원왕생가>가 차용된다. 이런 변화는 출발이 다름을 알리는 지표이다. 『삼국유사』의 광덕엄장은 두 승려가 정각(正覺)으로 서방정토로 먼저 가는 사람이 상대에게 알려 주기

6) 진정석, <역사에서 설화로, 설화에서 우화로>, 『김동리전집』 4, 민음사, 1995, p.465.

7) 김동리 <自序>, 『김동리 역사소설』(신라편), 지소림, 1977.

약속하고 수행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성불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불한 두 사문(沙門)의 이름이 동등하게 등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소설 <원왕생가>는 광덕과 업장, 그들 사이에 연하(延荷)라는 여자를 두고 인간적 욕망과 갈등으로 번뇌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이 부분에 소설의 대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소설 <원왕생가>는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 만큼 동일한 서사를 이룬다. 광덕과 업장이 서방정도에 먼저 이르면 상대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수행한다. 광덕이 먼저 서방정도에 간 이후에 업장은 광덕의 처 연하에게 동거를 청하고 그 이후에 동침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한다. 이 대목까지는 두 이야기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이후 업장의 행동이 『삼국유사』와 소설 <원왕생가>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삼국유사』에서는 업장이 연하의 질책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원효법사를 찾아가 정관법(淨觀法)을 배우고 도를 닦아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설 <원왕생가>에서는 업장이 연하의 꾸짖음으로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원왕생가를 부르는 연하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는 데에서 결말이 나온다. 다시 정리하자면 설화의 결말은 업장이 광덕을 좇아 성불했다는 사실로 마무리되어 있고, 소설의 결말은 극락왕생했다는 설화적 사실이 배제되고 업장의 대오각성으로 성불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삼국유사』의 광덕·업장의 이야기는 신라, 문무왕, 광덕, 업장, 분황서리, 황룡사, 남악, 원효, 원효법사본전, 해동고승전, 분황사 등이 고유명사가 보인다. 시공간의 분명한 규정은 이 이야기가 신화나 민담류와 구별되는 일종의 전설형의 서사적 진술임을 알게 해 준다. 그것은 독자에게 이야기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책이다. 사실과 비사실적인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어 역사적 진실로 믿고 싶어 하는 고대인들의 꿈이 스며 있음⁸⁾을 알 수 있다.

김동리의 소설은 액자소설 형태가 많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 “소설의 서술 방식은 설화적이다. 그의 소설은 대부분 서술자의 공간과 작중 인물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⁹⁾ <원왕생가>의 경우 고대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서술자가 현재의 시공간에 있지 않은 변형된 액자소설의 양식으로 나

8) 홍기삼, 『불교문학연구』, 집문당, 1997, pp.210-211.

9) 송하춘, <인간의 세계 혹은 신들의 세계>, 『김동리』, 웅진출판사, 1995, p.67.

타난다.

『삼국유사』에서 원효법사가 출가하여 자신의 집을 희사(喜捨)하여 초개사(初開寺)라 이름지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사료를 바탕으로 엄장이 초개사에서 지내는 원효법사를 찾아온 연유를 밝히며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는 데에서 소설은 출발하고 있다. 역사적 실제 인물인 원효법사를 등장 시킴으로써 허구적 서사에 사실성과 현실감으로 증폭시킨다.

『삼국유사』에서 원효는 요석공주와의 인연으로 설총을 얻었고, 광덕은 아내를 맞아들이나 그들 사이엔 아이가 없다. 그런데 『삼국유사』와 소설 <원왕생가>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 소설 <원왕생가>에서 광덕이 그의 아내 연하를 맞이한 후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된다. 광덕이 한 번의 통정으로 아들 하나를 얻게 된 이후부터 열반할 때까지 십 년 동안 아내 연하와 동침하지 않는다. 『삼국유사』와 소설 <원왕생가>에서 원효와 광덕은 승려이면서 여자와의 관계로 아이를 얻었다는 것에서 동일한 삶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 유사성이 광덕을 통해 역사적 실제 인물인 원효를 연상시키면서 원효의 삶과 사상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

『삼국유사』의 광덕·엄장의 이야기에서 신라인의 불교의식이 표출되어 있다. 광덕과 엄장이 서방정토에 이르기 위해 수행한 점, 광덕이 서방정토에 이르고 그 뒤를 이어 엄장도 원효에게 정관법을 배워 수행하여 극락왕생한 점, 그리고 엄장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 광덕의 처가 부처님의 열아홉 응신(十九應身)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죽어서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는 노래 ‘원왕생가’는 불교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삼국유사』에서 광덕의 처는 인명 없이 광덕의 처로만 기술되어 있다. 그녀가 부처님의 열아홉 응신(十九應身)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 소설로 옮겨오면서 광덕의 처는 연하(延荷)하는 이름을 가지고 서방정토를 열망하는 신심 깊은 여인으로 변용된다. 엄장이 연하에게 연정을 품고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려 하지만 연하가 이를 거부한다. 연하는 광덕이 자신에게 혼인을 제의했지만 육체적 유린이 없었다는 사실을 엄장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장 수좌도 내 몸에 손을랑 제발 대지 말아요. 나같이 불쌍한 게 집엘 그렇게 하고 서방 세계(西方世界- 극락) 못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방망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사옵니다. 그러자 연하는 곧 옷매무새를 고치며 보리밭 곶랑에서 일어나려 하였사옵니다. 순간 저의 목에는 뜻 아니했던 울음이 터져 나오며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쏟아져 나왔사옵니다.

「연하 연하.」

저는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꾸만 흐느껴 울었사옵니다. 연하는 다정한 목소리로,

「저도 부처님 믿어서 극락 세계 가고 싶어요. 장 수좌님 생각 돌려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는 그곳을 떠나가 버렸사옵니다.¹⁰⁾

「장 스님(엄장) 듣자옵소서. (. . .) 한 번은 이 몸이 물어보았사옵니다. 왜 이 몸을 금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엄장과 더불어 정진을 맹세하였노라고 대답하였사옵니다. 그때 저는 맘속으로 덕 스님의 도경(道境)이 이미 높으심을 깨닫고 그를 따라가려고 저도 주야로 아미타불을 불러왔사옵니다. 지금 이 몸이 장 스님을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은 덕 스님의 뒤를 이어 정진을 쌓으시와 이 몸도 함께 덕 스님이 가신 서방 세계로 이끌어 주시을까 하였사옵는 뿐이지 다른 뜻이 없사옵니다.」 (p.342)

엄장이 연하에게 집요하게 구애(求愛)하나 연하가 혼인한 이후에는 정각(正覺)에 힘쓴다. 그러나 광덕이 서방정토로 간 이후 연하에 대한 연정이 다시금 솟게 된다. 연하는 남성의 애욕의 대상이다. 그때마다 연하는 엄장의 뜻을 거부한다. 설화에서 광덕의 처가 부처의 십구응신(十九應身)의 하나였는데 여성으로 화현(化現)하여 남성을 성불하도록 이끈다. 소설 <원왕생가>에서 작가의 상상력은 설화의 출발 시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능적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적 고뇌를 서사화함으로써 소설의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이것은 단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설정한 것은 아니다. 애욕은 불자(佛者)의 수행에 큰 장애물이다.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극도의 절제를 함축한 상징이다. 여성이 남성을 성불하도록 유도하는 것¹¹⁾은 설화와 소설의 공통점이다.

10) 김동리, 『김동리전집』 4, 민음사, 1995, p.338. 이후 본문 인용은 페이지 수만 밝히기로 한다.

11) “유혹받는 여성은 성욕의 대상으로, 유혹하는 여성은 성욕의 주체로 둘 다 여성

연꽃은 불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연꽃을 연화(蓮花)라고 한다. 연화와 연하(延荷)의 발음의 유사성은 연꽃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얼굴엔 어딘지 푸른빛이 돌았사오나 두 눈은 연꽃같이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사옵니다. (p.332)

어스름 달빛에도 그녀의 파리한 얼굴과 그 연꽃같이 슬프고 아름다운 두 눈이 보이는 듯하였사옵니다. (pp.333-334)

그것은 마치 멀고 먼 극락 세계에서 들려오는 관세음 보살님의 노래가 연꽃(蓮花)을 타고 피어나는 듯한 그렇게 슬프고 아름다운 소리로 가늘게 들려오는 것이었사옵니다. (p.343)

김동리에게 꿈의 여인상은 연꽃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것은 <원왕생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달>의 ‘정국’, <역마>의 계연, 그리고 <사반의 십자가>의 ‘마리아’에게서 연꽃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푸른빛’을 띤 ‘슬프고 아름다운’ 연꽃의 이미지는 인간의 情恨을 담고 있다. 정신적으로 늘 합일되려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모순은 남자의 감정이 대상에 투영¹²⁾되어 ‘슬프고 아름다운’ 것으로 비취는 것이다. 연꽃은 진흙 수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잎과 꽃에 더러움을 묻히지 않는다. 이것은 세속에 살면서도 현실적 욕망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정결함과 같다. 연꽃 이미지를 담은 연하의 염불소리에 신앙적 열망과 인간적 고뇌가 응축되어 있으며 서방정토에 대한 애절한 발원에 깊이를 더한다.

의 성욕을 왜곡한 것이고 더 나아가 여성을 소외시킨 것으로 이는 불전 소재 애욕의 화신으로서의 여성상 내지 불타 전기의 마녀상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간 관음이 여성으로 나타난 우월한 위치에서 고승인 남성을 계도하고 성불로 이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성적인 여성상의 문제를 간과하였다. 관음설화에 서 여성과 성을 다루는 방식은 여성상 정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박상란, 『관음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한국 서사문화과 불교적 시각』(pp.193-194).

12) 이보영, <연화의 비의(蓮花의 秘義)>, 『동리문학연구』, 서라벌 예술대학 문창과, 1973, p.120.

3. 원효의 정토사상과 신라인의 종교의식

연하는 일찍이 부모를 여윈 고아이다. 그녀를 동정한 스님이 절에서 공양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절을 드나들게 된다. 연하에게 연정을 품은 엄장이 가까이 해보지만 연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점차 시간이 흘러 광덕과 연하가 가까워지면서 혼인하게 되고 엄장에게 서방에 먼저 가는 사람이 소식을 전하기로 하고 헤어지게 된다.

그 뒤 광덕은 연하와 혼인을 해서 아기까지 낳았다고 들었사옵니다. 바로 분향사 곁에서 신을 삼아 팔며 근근이 호구를 한다고 들었사옵니다. 저는 남산(南山) 기슭에다 움막을 치고, 그 곁에다 조금씩 곡식을 심어가며 혼자서 마음을 닦으며 지냈사옵니다. (p.340)

광덕은 신을 삼아 파는 상인이고 엄장은 밭을 일구며 사는 농민이다. 그들은 현실생활이 안락하거나 윤택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의 복락을 기원하지 않고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수행한다. 광덕은 파계(破戒)하고 환속하여 처자와 지내면서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광덕이 서방으로 간 후 엄장은 광덕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연하에게 동거를 허락을 받은 후 동침을 요구한다. 이에 엄장은 연하의 질책을 듣게 된다. 광덕과 엄장, 그리고 연하가 삼각관계이지만 치정에 얽힌 비극적 결말이 없다. 오히려 서방정토에 이르고자 정진하는 세 인물은 동반 성불하려는 신앙적 완성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비록 미천한 인물이었지만 불성을 실현하려는 신라인의 높은 정신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정토신앙은 신라의 상류층보다 하류층이 많이 믿었다. 삼국통일의 전란을 치루면서 민중들은 황폐한 마음을 종교에 귀의하여 다스리고자 했을 것이다. 성불(成佛)에 스스로의 힘보다는 보살과 붓다의 원력(願力)에 기대는 타력(他力) 신앙이 정토신앙이다. 미혹한 중생은 성불하기 어려우므로 부처의 힘을 빌려야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토신앙은 미천한 계층까지 극락왕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천한 신분이 극락왕생을 발원(發願)하여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에서 당시 신라 “하층민은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났으며 하층민의 의식의 향상”¹³⁾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미타신앙을 통한 중생구제의 평등성이 민생안

정을 통한 왕권강화를 피하던 중대왕실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¹⁴⁾

엄장이 열네 살 때 출가하여 분황사에서 지냈다. 엄장이 본사(本寺)인 분황사에서 승려생활을 할 때, 원효대사도 그곳에서 지냈지만 그때는 엄장이 사미(沙彌)의 몸이어서 감히 뵈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원효대사가 분황사에 머물면서 『華嚴經疏』를 지었고 그때에 그의 활동이 왕성했으며 민중들이 정토신앙을 받들 때였다. 그 이전에는 자장(慈藏)이 분황사에서 지냈는데 자장의 사상에 배치되는 원효가 분황사에 들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삼국유사』 자장전(慈藏傳)에 자장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오자 온 나라가 기뻐하며 그를 환영하였고, 그는 분황사에서 머물면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한다. 그때에 자장은 대국통(大國統)으로 지내면서 승려의 모든 규범을 주관하였으며, 대승적 율학(律學)을 정립하였다. 자장의 대국통기에 원효 역시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것은 계율을 떠받드는 기존 불교 교단에 대한 비판이며 도전이었다. 자장이 지배층 중심의 불교를 지향했다면 원효는 서민 중심의 불교를 지향하여 서로 대비되었다.

광덕과 엄장, 그리고 연하, 세 인물이 그토록 열망했던 정토는 어떤 곳인가?

여기서부터 서방 십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극락이라 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그 국토에 아미타라 불리시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시니라!¹⁵⁾

“정토는 이미 수행을 끝내고 나서 만드는 맑고 깨끗한 불국토(佛國土)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처의 경계에서의 정토를 말하는 것이다.”¹⁶⁾ 일반적으로 극락(極樂)·안양(安養)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미타불의 서방정토이다. 정토는 사바와 극락, 예토(穢土)와 정토(淨土)의 상대적 범주로서가 아

13) 김영미,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1994, p.15.

14) 위의 책, p.15.

15)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대정장』 권12, 346면 하) 從是西方, 過十萬億佛土有世界, 各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고영섭, 『원효탐색』, 연기사, 2001, pp.195-196 재인용.)

16) 위의 책, p.195.

나라 절대적 범주를 말한다. 모두 불국토라고 하면서 서방이라고 한 것은 현실적 인간들에게 서방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여 정토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이다. 서방은 해가 떠서 나아갈 방향, 즉 어떠한 의지처를 가리키는 방향의 상징인 것이다. 서방은 현실적 인간들의 성품이 돌아가야 할 곳이다.¹⁷⁾ 원효는 일심(一心)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정토이며, 그곳에는 정토와 예토의 구별이 없다고 말한다. “정토는 공간적인 별도의 영역이 있어서 차방에서 타방을 왕생하는 것이 아니며, 중생 스스로 심성의 자각이 정토를 건설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오직 마음에 의한 정토”¹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원효가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 상대적 이분에서 차별성이 생김을 깨닫는 과정에서 모색되었다. 그것은 원효가 의상과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길에서 경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¹⁹⁾

예토와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분별심으로 인해 얽매이게 되고 불각(不覺)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분별지(分別智)로 중생은 번뇌에 휩싸이고 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일심(一心)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바세계(穢土)와 극락세계(淨土)가 본래 한 마음(一心)이며,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은 끝내 두 극단이 없다. 그러나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매우

17) 위의 책, pp.196-197 참조.

“일심이란 무엇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됨과 거짓됨의 두 문(門)은 다름이 없으므로 하나라 이름하는 것이다.” 何謂一心? 謂染·淨諸法其性無二 (같은 책, p.56 재인용.)

18)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 上, 한국불교연구원, 2004, p.136.

19) 캄캄한 길을 걷던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움막 같은 빈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목이 말라서 잠이 깬 원효는 머리맡에 있는 물그릇이 손에 잡혀 그 물을 달게 마시고 다시 잠들게 된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보니 그들이 잤던 곳은 오래된 무덤 속이었다. 주위에 뼈다귀가 굴러다니고 머리맡에는 해골 바가지가 놓여 있었다. 원효가 간밤에 달게 마셨던 물은 해골 바가지에 담겨 있던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원효는 구역질을 한다. 어제 달게 마실 때나 오늘 구역질 할 때나 물 자체는 변화가 없으나,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것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유학 가려던 마음을 거두게 된다.

어려운 일이며, 하나에 흥미해진 꿈을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때문에 큰 성인이 남기신 자취는 멀고 가까움이 있으며, 베풀 가르침을 칭찬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석가여래(釋迦如來)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시어 오탁의 나쁜 세상을 경계하시고 왕생을 권장하였으며, 아미타(阿彌陀) 부처님께서 저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세 분류로 중생을 왕생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경은 바로 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이며, 네 가지 무리들이 바른 길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다. 정토가 원할 만한 곳임을 보이고 오묘한 덕이 있어 돌아갈 만한 곳임을 찬탄하였다. 오묘한 덕이 있어 돌아갈 만하다는 것은 이 경의 이름을 귀로 들으면 일승(一乘)에 들어가 거스르는 일이 없으며, 입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 삼계(三界)를 벗어나 되돌아오지 않으니, 하물며 예배하고 오로지 생각하며 노래 불러 찬탄하고 관찰하는 자이겠는가.²⁰⁾

광덕은 혼인 이후 환속하여서도 정진하였는데 그런 사실에서 원효의 사상적 일면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원효가 요석공주와의 만남으로 설총을 얻은 후에도 자칭 소성거사(小姓居士)라 칭하며 불교 대중화에 주력한 사실과 또 그가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에 일심(一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실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원효는 산속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는 승려들을 비판하였다.

광덕을 좇아 광덕의 아내 연하도 서방에 가고자 했다. 그렇다면 서방정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수행법은 어떠했는가?

「장 스님(엄장) 듣자옵소서. 덕 스님(광덕)과 이 몸이 혼인한 지도 십 년이 지났사옵습니다. 혼인한 지 처음 몇 달이 지난 뒤 스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십 년 동안 스님께서 아침 저녁 저와 더불어 자리를 같이하였사오나 한 번도 저의 몸에 손을 대신 일이 없사옵습니다. 저 아이는 저희가 혼인한 지 열

20) 『불설아미타경소(佛說阿彌陀經疏)』(『한불전』 권1, 562면 하) 爾乃或烟染業, 隨五濁而長流, 酷承淨緣, 絕四流而永寂, 若斯動皆, 皆是大夢, 以覺望之, 無流無寂, 穢土淨國本來一心, 生死涅槃終無二際, 然無二之覺. 取之良難, 迷一之夢去之不易. 所以大聖垂迹, 有遐有邇, 掃障言教, 酷褒或貶, 至如牟尼善逝, 現礎穢土, 誠五濯而勸往, 彌陀如來, 御彼淨國, 引三輩而導生. 今是經者 柲乃兩尊出世之大擬, 四輩入道之要門, 示淨土之可願, 讚妙德而呵歸, 妙德可歸者, 耳聞經名, 則一乘而無反, 口誦不號, 則出三界而不還, 何況禮拜專念, 讚詠觀察者哉 (고영섭, 앞의 책, p.204 재인용)

한 달 만에 낳은 아이요, 그 뒤엔 다른 아이가 있을 수 없사옵니다. 한 번은 이 몸이 물어보았사옵니다. 왜 이 몸을 금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엄장과 더불어 정진을 맹세하였노라고 대답하였사옵니다. 그때 저는 맘속으로 덕 스님의 도경(道境)이 이미 높으심을 깨닫고 그를 따라가려고 저도 주야로 아미타불을 불러왔사옵니다. 지금 이 몸이 장 스님을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은 덕 스님의 뒤를 이어 정진을 쌓으시와 이 몸도 함께 덕 스님이 가신 서방 세계로 이끌어주시을까 하였사옵 뿐이지 다른 뜻이 없사옵니다.» (p.342. 밑줄: 필자)

광덕의 육체적인 욕망 절제는 정진(精進)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연하가 정도왕생을 염원하며 ‘주야로 아미타불을 불러왔’다는 것이 그 수행법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광덕의 수행만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문무왕대에 아미타 정도신앙이 하층민에게까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설 <원왕생가>와 『삼국유사』의 두 이야기에서 칭명염불(稱名念佛)의 수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불교의 대중화에 주력했던 원효는 교법을 듣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았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根機)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효는 극락왕생이 스스로의 업인력(業因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는냐는 왕생인(往生因)이란 왕생의 방법을 말한다. 그것은 행(行)과 원(願)이 합해져야 한다. 왕생인(往生因)은 정인(正因)과 조인(助因)으로 나누어지고 정인(正因)이란 무상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며, 조인(助因)이란 하배(下輩)²¹⁾의 심

21) 『무량수경』에서 삼배인(三輩因)이 설해지고 있는데, 삼배는 상배, 중배, 하배로서 각각 그 인행이 같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상배인의 왕생인은 다섯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 가정과 욕망을 버리고 사문이 되는 것[正因方便], b. 보리심을 발할 것[正因], c. 오로지 아미타불을 염할 것[修觀], d. 여러 가지 공덕을 지을 것[起行], e. 정도에 왕생하기를 원할 것[願].

중배인의 왕생인으로 네 가지가 있다. a. 사문이 되지 않더라도 무상보리심을 발할 것[正因], b. 오로지 아미타불을 염할 것[修觀], c. 다소의 선을 닦을 것[起行], d. 정도에 왕생하기를 원할 것[願].

하배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각각 그 왕생인이 다르다. 첫째로는 하배인의 왕생인으로 부정성인(不定性因)은 10念이 필요하고, 심오한 불법을 듣고 기뻐

념(十念)²²⁾이다. 십념(十念)에는 이의(二義)가 있는데 현료의(顯了義)와 은밀의(隱密義)이다. “현료(顯了)의 십념(十念)은 지심(至心)으로 그 염불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십념을 구족(具足)하는 것이다. 이 현료의 십념자는 비록 오역과 십악의 죄를 짓고, 모든 악을 다 행했다 하더라도 임중에 이르러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염불을 알게 되었으나 그의 마음의 염불이 되지 않는 경우 입으로라도 무량수불을 칭하며 십념을 구족하면 80억 겁의 생사의 죄가 소멸되고 왕생한다.”²³⁾ 수행은 지심(至心)과 십념상속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효는 지심(至心)이란 마치 도적에 쫓겨 강을 건너는 사람의 심정처럼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까 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하는 것으로 아무런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는 마음이다. 이 같은 일념이 열 번 계속되는 마음이 곧 십념의 상속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지심(至心)은 일심이며 십념상속은 무간십념염불(無間十念念佛)로

하며 믿는 보살종성인(菩薩種性人)은 일념으로 무량수불을 생각한다. 이 하배인의 왕생인에서 부정성인의 십념과 보살종성인의 일념의 차이는 심신(深信), 즉 깊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구별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깊은 믿음이 없는 부정성인은 십념이 필요하지만 깊은 믿음이 있는 보살종성인은 일념으로도 된다고 본 것이다.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 上, 한국불교연구원, 2004, pp.146-148 참조. 김영미,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1994, pp.96-97 참조.)

22) 은밀(隱密)의 십념이란 하배의 십념공덕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륵발문경』에 의거한다.

- ㉠ 일체 중생에게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중생의 행을 방해하지 않는 마음
- ㉡ 일체 중생에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잔인하게 해칠 뜻이 없는 마음
- ㉢ 정법을 수호하는 마음을 내고 신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
- ㉣ 인욕하는 마음으로 결정심을 내는 것
- ㉤ 깊고 깊은 청정한 마음으로 이양(利養)에 물들지 않는 것
- ㉥ 일체중지심을 일으켜 날마다 항상 생각하며 잊지 않는 것
- ㉦ 일체 중생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아만을 버리고 겸손한 말을 하는 것
- ㉧ 속된 이야기에 재미를 붙이지 않는 것
- ㉨ 깨달으려는 뜻을 가까이하고 여러 가지 선근인연을 일으키며, 시끄럽고 산란한 마음을 멀리 여윌 것
- ㉩ 바른 생각으로 관불하고 제근(諸根)의 작용을 제거할 것.

원효는 이 같은 십념을 갖추면 이미 범부가 아니며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이라고 보았다.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 上, 한국불교연구원, 2004, pp.151-152 참조.)

23)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 上, 한국불교연구원, 2004, pp.151-152.

써 이를 현료(顯了)의 십념이라고 했다.”²⁴⁾

광덕과 엄장은 여자에게 현혹되는 범부 중생이다. 광덕은 부부의 인연으로 여자를 품고 있는데 반해 엄장은 홀몸이다. 광덕이 연하와의 관계로 사문(沙門)으로서 과계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어 이를 뉘우치는 마음이 절실하여 지심으로 수행하였을 것이다. 광덕에 비해 엄장의 정각(正覺)이 지체된 것은 광덕처럼 절절한 자성(自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엄장도 연하의 질책으로 자성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므로 성불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연하도 서방정토에 이르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왕생을 위해 수행하는 것에 빈부귀천이나 남녀 차별이 없다. 여기에서 “선인선과(善因善果)의 신앙성격”²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신라 아미타 정토사상의 특성이다.

4. 칭명염불(稱名念佛)과 ‘달’

불교에서는 스스로 노력하여 진리를 깨우쳐서 해탈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정토신앙은 ‘깨우침’보다는 마음을 모아 ‘비는 것’이 중요한 수행이고 부처의 원력에 의탁한다는 의미에서 타력적(他力的)이다. 따라서 정토신앙은 정토불교에서 파생된 변형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학승이면서 교학과 실천적 신앙이 합치되었다. 그는 중생의 근기(根機)에 맞추어 교화하였고 하근기의 중생을 외면하지 않았다. 근기가 낮은 경우에는 불교 교리로 교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심(至心)으로 칭명염불(稱名念佛)만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손쉬운 방법을 가르쳤다.

광덕과 엄장은 학승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층민이었으며 범부였다. 그들의 수행은 소설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삼국유사』에 광덕이 “매일 단정하게 앉아서 한결같이 아미타불을 외면서 16관(十六觀)을 짓고 관이 다 되어 미혹을 깨치고 달관하여, 밝은 달이 창으로 들어오면서 때때로 그 위에 올라 가부좌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설 <원왕생가>는 향가

24) 위의 책, p.152.

25) 김영태, 「삼국시대 미타신앙의 수용과 그 전개」, 『신라미타정토사상연구』, 민족사, 1988, p.48.

<원왕생가>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설화 속에서 가부좌의 달과 시 속에서 나타난 기원의 달이 같은 문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²⁶⁾ 왜냐 하면 지상의 인간과 서방의 무량수불을 이어주는 중개자인 달은 인간의 소망을 의탁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달’은 서정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정도 이상을 넘어서 있다. 광덕이 서방정토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을 달에 위탁한 것처럼 연하도 달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은 지상의 인간과 서방의 무량수불을 이어주는 중간적 매개체인 것이다. 하배(下輩)가 지심(至心)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에 의지하여 서방정토에 가고자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다. 자력(自力)이 아니라 타력(他力)으로 인간의 신앙적 염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렇게 한참 느껴 울고 있을 때 저의 귀엔 문득 형언할 수 없이 맑고 슬프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멀고 먼 극락 세계에서 들려오는 관세음 보살님의 노래가 연꽃(蓮花)을 타고 피어나는 듯한 그렇게 슬프고 아름다운 소리로 가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달아 이제 그대는
서방까지 가시리. 가시거든
무량수불전에
이내 사연 삶아주소서.
다짐(맹세) 깊으신 임께 우러러
두 손 모아 부르오니
원왕생 원왕생
그리운 사람 있다 삶으소서.
아아 이 몸 남겨 두시고
사십팔 대원 이루실까.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星遺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多可知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26) 홍기삼, 『불교문학연구』, 집문당, 1997, p.228.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遣賜立
 阿邪此身遣也置古
 四十八大願成遣賜去

그때 저는 울음을 그치고 그 슬프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사옵니다. 무량수불전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연하의 얼굴에도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사옵니다. (pp.343-344)

서방정토로 가는 달에게 연하는 정토왕생을 도와달라고 지심(至心)으로 기원한다. 서방정토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적 열망과 인간적 고뇌가 승화되어 ‘원왕생가’ 노래에 응축되어 소설의 절정을 이룬다. 연하의 ‘원왕생가’에 엄장이 눈물을 흘렸다 함은 엄장의 존재론적 변화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5. 결론

김동리는 역사 단편소설을 통해 신라혼을 탐구하고 재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김동리의 <원왕생가>를 텍스트로 사료와 허구화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고, 신라인의 삶과 종교의식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원효의 정토사상을 중심으로 밝혀보았다.

『삼국유사』에서는 광덕과 엄장이 수행으로 서방정토에 이르렀다는 설화적 진실이 부각되어 있다. 이에 반해 소설 <원왕생가>에서는 비사실적인 부분이 배제되고 인간적 고뇌가 부각되어 소설의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광덕과 엄장 그리고 연하, 이 세 인물은 삼각관계이지만 치정에 얽힌 비극적 결말이 없다. 그들은 하층민이면서도 현실의 복락보다도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정진한다. 세 인물은 동반 성불하려는 신앙적 완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천한 인물이지만 불성을 실현하려는 신라인의 높은 정신적 세계를 볼 수 있다. 미혹한 중생은 성불하기 어려우므로 부처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타력(他力) 신앙이 정토신앙이다. 원효는 교법을

듣고 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달라서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기(根機)가 낮은 증생은 지심(至心)과 일념(一念)으로 칭명염불(稱名念佛)하면 정토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 인물의 수행법이 칭명염불(稱名念佛)이다. 이들은 하배(下輩)로서 현료(顯了)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정토왕생을 염원했던 것이다. 이 수행이 소설에서는 달에 의탁하여 기원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하배(下輩)가 현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에 의지하여 서방정토에 가고자 기도하는 것은 타력(他力)신앙면에서 동일하다. 서방정토를 향한 신앙적 열망과 인간적 고뇌가 승화되어 ‘원왕생가’에 응축되어 소설의 절정을 이룬다. 엄장이 연하의 ‘원왕생가’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엄장의 존재론적 변화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사렛대>

인용문헌

- 고영섭. 『원효탐색』. 연기사, 2001.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 上. 한국불교연구원, 2004.
 김동리. 『김동리 역사소설』(신라편). 지소림, 1977.
 김영미.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1994.
 불교사학회. 『신라미타정토사상연구(新羅彌陀淨土思想研究)』. 민족사, 1988.
 이도흙.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3.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옮김, 을유문화사, 2002.
 조현설 외. 『한국 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 역락, 2005.
 한국불교원전연구회.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 사상』. 예문서원, 2004.
 홍경표. 「역사-인물 담론과 소설화 과정」.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9.
 홍기삼. 『불교문학연구』. 집문당, 1997.
 황영선 편저. 『원효의 생애와 사상』. 국학자료원, 1996.

A Study of Wonhyo's Thought of Buddhist Elysian Fields
in Kim Dong-ri's "Won-wang-saeng-ga"

Abstract

Minhwa Bang

This paper assesses the distance between fiction and historical truthfulness in "Won-wang-saeng-ga" written by Kim Dong-ri. This study inspects lives and explores the religious mind in Shilla dynasty period depicted in "Won-wang-saeng-ga" which is based on Wonhyo's thought of Buddhist Elysian Fields.

Even though Kwangduck, Umjang and, Yonha belong to the lower-class, they lead an ascetic life and wish to get to the Buddhists' paradise rather than enjoying the present bliss. Furthermore, even though they were born in a humble family, we can notice that the high spiritual world of Shilla times let them pursue to attain the nature of Buddha.

The Buddhist Saint Wonhyo insists that even those who are short of competence reach the paradise of Buddhism through prayer alone, a prayer to Amitabha with mindfulness. The three characters mentioned above long to reach the Buddhists' paradise with *hyunryo*(顯了) mind. The fact that Umjang sheds tears, when he hears Yonha's song, shows a possibility of change in Umjang's existence.

Key Words

a historical novel, Nirvana, the Buddhist Elysian fields, Amitabha, mindfulness

방민화 Minhwa Bang

E-mail: silbia007@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06년 11월 1일

게재 확정일: 2006년 11월 20일